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관련변수

A Study on the Structure of Family Social Network

성심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 元 曉 鐘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부교수 : 玉 先 花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im Women's University
Instructor : Hyo Jong Won*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Sun Wha Ok*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size and composition of social network and to identify their related variables in urban nuclear famil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by wives living in Seoul area. The methods of statistical analysis used in the study were the frequency, mean, percentile and one-way ANOV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 1) The size of social network in urban nuclear families was 10.0 in average and 2~33 in range.
- 2) The composition of social network were 45.5% in relatives, 20.6% in neighbors, 21.8% in friends, 4.7% in coworkers, 4.1% religious group members 2.1% in associational members, and 1.4% in formal supporters.
- 3) The birth order of husbands was related to the size of social network. The composition of social network was influenced by SES, family life cycle, husband's birth order, housing type, residence duration, age, education, employment, religion, and familism.

I. 문제의 제기

가족은 개방된 체계로서 외부의 개인이나 사회

집단들과 영향을 주고 받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능을 수행해 간다. 이 과정에서 맺어진 사회적 관계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한다(Milardo, 1988). 따라서 사회관계망은 가족생활의 제 측면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된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내부적 특성을 규명함은 물론, 사회적 환경이 되는 사회관계망과의 관계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사회관계망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관계망이 가족관계의 구조나 기능, 가족의 복지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조선중기 이후의 전통적 사회관계망이 친족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을 전제하고, 산업화 도시화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들중 상당수가(김경원, 1989; 김주희, 1990; 유가효, 1984; 이광자, 1988; 이동원, 1984; 이원주, 1989; 이정향, 1980; 최재석, 1987) 친족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친족관계망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는(강대기·홍동식, 1982; 최성기, 1984; 최재석, 1983) 근린관계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가족이 가지는 사회관계망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되므로 친족관계나 이웃관계 등 사회관계망의 일부분에 대한 구명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 따라서 좀더 포괄적으로 사회관계망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변화순, 1990; 신기영, 1990; 오선주, 1990, 1992; 오승환, 1990; 이경희, 1988; 정채성, 1989; 조옥라, 1976; 최현숙, 1990)도 진행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가족과 각 사회관계망 범주들과의 상호작용 정도나 내용(사회관계망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족의 사회관계망의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으로서 사회관계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면과 상호작용(기능)적인 면의 양면에서 접근해야 한다(Barrera, 1981; Ell, 1984; Milardo, 1988).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각 관계망 범주와의 상호작용적인 면을 개별적으로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 관계망의 범주들의 전체적인 조직형태를 파악해보는 구조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몇편(오승환, 1990; 이경희, 1988; 최현숙, 1990)에

불과하고, 그것도 상호작용적 특성을 분석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회관계망의 구조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의 구조 분석은 사회관계망의 적절한 측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은 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포괄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의 측정방법이 바람직하다(Milardo, 1988; 1989).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구조적 분석은 이상과 같은 적절한 사회관계망 측정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관계망의 크기를 극히 적은 수로 제한하여 구성원을 파악하거나(오승환, 1990) 구성원의 파악없이 사회관계망 범주별로 접촉하는 구성원의 수를 질문하여 관계망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사회관계망의 다양한 기능영역에서 가족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하여 사회관계망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관계망의 구조는 주로 관계망의 크기, 구성 혹은 밀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되는데(Milardo, 1988; Wilcox, 1981)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바 친족범위의 축소(최재석, 1987; 이광자, 1988)와 사회관계망 범주의 확대(오선주, 1992)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관계망의 크기와 구성만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의 환경조건과 개인의 특성은 사회관계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Ell, 1984) 사회관계망의 구조는 가족환경 변수와 개인 특성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관계망의 구조적특성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관련되는 변수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구성을 분석하여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

성을 파악하고 관련변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사회관계망 크기와 구성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2) 가족의 사회관계망 크기와 구성에 관련되는 변수는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함으로써 본 연구는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을 밝혀 가족의 사회관계망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가 가족의 복지와 관련하여 가족의 사회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며 또한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과 가족생활의 제측면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관계망의 개념과 측정

사회관계망 개념은 여러학자에 의해 다양한 연구영역에 적용되면서 발전되어 왔다(오승환, 1990; Wellman, 1981). 그러므로 사용하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사회관계망의 개념을 가족연구에 최초로 적용하였던 Bott(1971: 58)는 “가족구성원들이 외부사회와 맺고 있는 제 관계”로 정의하였다. Lee(1979: 27)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관계망 개념을 정의하면서 “사회관계망이란 서로간에 다양하게 많은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Milardo(1988: 13)는 “특정한 개인이나 부부를 알고 있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포괄적인 사회관계망의 정의에 의하면 가족의 사회관계망은 가족원들이 관여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며 그들이 접촉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회집단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정하게 사회관계망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일차집단이 가족과

가장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회관계망을 친족, 친구, 이웃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보다 확대한 경우에는 자발적 단체(Lee, 1979) 직장동료, 공적 지원자를 사회관계망의 범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El, 1984). 국내의 연구에서는 관계망의 범주로 계나 동창회 등과 같은 모임이나, 종교집단의 회원이 포함되는 경우(오선주, 1990, 1992; 최현숙, 1990)도 있다.

이상에서 사회관계망의 개념정의와 범주의 규정을 살펴본 바, 본 연구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Milardo(1988)의 정의에 따라 가족의 사회관계망을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가족의 사회관계망을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을 알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가능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의 범주를 포함하여 친족, 이웃, 친구, 직장동료, 자발적 단체 및 모임회원, 종교집단 회원, 공적 전문적 지원자를 사회관계망의 범주로 규정하고자 한다.

포괄적인 사회관계망의 개념정의에는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범위가 아주 크다. 그러므로 사회관계망의 모든 구성원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실상 필요한 것도 아니다(Milardo, 1988). 따라서 사회관계망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관계망 구성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적절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이다(Milardo, 1989).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망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사회관계망 구성원을 파악하는 측정방법은 다양한데 Milardo(1988)는 이것들을 친밀한 친지관계망(network of close associates)측정, 교환 관계망(exchange network)측정, 상호작용적 관계망(interactive network)측정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측정방법에 따라 개인과 사회관계망 구성원과의 아는 정도나 상호작용 정도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측정된 사회관계망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연구의 주제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유형의 관계망을 측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McCannell,

1988; Milardo, 1988; 1989).

본 연구는 조사방법에 의하여 사회관계망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며, 앞으로 사회관계망과 가족의 구조나 심리적 복지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시도되었으므로 교환관계망의 측정방법을 통하여 관계망 구성원을 파악하고자 한다.

교환관계망은 판단의식이나 사적인 호의에 근거해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서 보상적인 교환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사회관계망이다. 이러한 교환관계망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집단과 그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영역들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각 영역에서 응답자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다(Milardo, 1988; 1989). 다음으로 추가질문을 통하여 선택된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질문항목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성별, 응답자와의 관계, 친하게 된 동기, 부부 공동관계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환관계망의 방법은 대부분 개인들의 생활을 대표하는 여러 기능영역과 사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므로 좀더 넓은 범위의 관계망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고, 구성원을 포함하는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므로 사실적이고 대표적인 표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조사방법에 의한 사회관계망 연구를 위하여는 교환관계망 측정방법이 현재 가장 유망한 측정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1) 사회관계망 크기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개인들이 접촉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수'로서 정의되며(오승환, 1990; Rands, 1988; Surra, 1988) 응답자가 질문답지에 기재한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총수로서 측정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사회관계망 크기를 '부부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수'로 정의하고 응답자가 기재한 사람들의 총수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Milardo(1988)는 관계망을 '구성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접촉한 사람들'이라고 넓게 정의한다면 그 크기가 평균 약 250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원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로 규정되는 교환관계망의 크기가 분석되고 있는데, 평균 16.6명(McCannell, 1988; Wilcox, 1981), 20.8명(Rands, 1988) 혹은 22.8명(Milardo, 1989) 등과 같이 20명 내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회관계망의 크기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경희(1988)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친구와 이웃의 수는 각각 1~5명이라고 하였으며 오승환(1990)은 도시 빈민들은 평균 2명 정도의 극히 작은 친밀한 관계망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현숙(1990)은 상례시 부조자들로 구성된 가족의 사회관계망 크기는 평균 100~150명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국내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측정방법이 다소 편이적이거나(이경희, 1988; 오승환, 1990) 연구대상이 빈민이라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거나(오승환, 1990) 상례라는 특수한 의례적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의 크기를 분석하였다(최현숙, 1990).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족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유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관계망의 크기로 받아 들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총수로서 관계망의 크기를 밝히고자 한다.

2) 사회관계망 구성

사회관계의 구성은 사회관계망이 어떠한 구성원들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속성으로서 '구성원의 특성'(Rands, 1988) 혹은 '구성원의 분포'(Milardo, 1989)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각 특성의 범주에 해당하는 관계망 구성원의 총수나 구성비율로 파악된다. 구성원의 특성으로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결혼여부, 자녀유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

에서는 응답자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어 사회관계망 구성을 사회관계망의 범주에 따른 구성원의 분포로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성을 '부부가 관련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의 범주에 따른 구성원의 분포'로 정의하고 사회관계망의 전체 크기에서 각 범주별로 구성원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Milardo(1988)에 의하면 친족의 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에 비해 훨씬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관계망의 범위가 커질수록 친족의 구성비율은 낮아져서, 이름을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로 규정되는 사회관계망에서 친족의 구성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환관계망에서는 친족이 상당히 큰 구성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Milardo(1989)는 교환관계망의 구성이 친족 36.5%, 친구 45.4%, 친지 4.6%, 직장동료 6.7%, 이웃 4.4%, 기타 2.2%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Fischer와 동료들(1989)은 친족이 45%, 친구가 46%, 기타관계(지도자, 성직자, 직장동료 등)가 평균 9%인 구성원의 분포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친족과 비친족으로 대별할 경우, 친족이 48% 비친족이 52%(Rands, 1988) 혹은 친족 51% 비친족 49%인 구성원의 분포형태(McCannell, 1988)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서구사회의 교환관계망에서 친족과 친구는 각각 40~50%, 이웃, 직장동료, 친지 등은 각각 5% 내외의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성을 살펴보면, 오승환(1990)은 도시 빈민가족의 사회관계망 연구에서 친족이 32.8%, 친구가 31.7%, 이웃이 25.7%, 기타가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최현숙(1990)은 상례시의 사회관계망은 친족 22%, 동네사람 23%, 학교동창 9%, 직장동료 14%, 모임회원 15%, 기타친지 17%로 구성됨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빈민이라는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상례라는 특수한 경우의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일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망 구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가족생활 영역에서 가족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관계망 구성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관계망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관련변수의 고찰

1) 가족 환경 변수

(1)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관계망 연구(김주희, 1990; 오승환, 1990)나 일반지역과 빈곤지역의 사회관계망을 비교한 연구(변화순, 1991)에서 중류층 및 일반지역에 비해 빈곤계층은 사회관계망이 좀더 위축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의 한 요소가 되는 소득이 위기시 지원망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Chatters, Taylor & Neighbors, 1989),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관련되는 변수로 고려된다. 또한 빈곤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이웃과의 교류가 더 많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고(변화순, 1991), 수입은 이웃과의 관계의 범위나 정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강대기·홍동식, 1982), 접촉하는 친정친족의 수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이동원, 1984) 나타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관계망 구성과도 관련되는 변수로 예측된다.

(2) 가족생활주기 단계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가족의 요구와 생활 조건의 변화는 가족내외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오므로(이경희, 1988), 가족의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부모됨으로의 전이를 전후하여 사회관계망의 크기나 구성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자녀 출산후 관계망의 평균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McCannell, 1989) 친족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친구의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McCannell, 1989; Belsky & Rovine, 1984)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가족생활 주기 단계에 따라서 노년기 이전까지는 시가와외의 접촉 범위가 증가하고 접촉하는 이웃의 수가 증가하거나(이경희, 1988), 이웃 지원망의 크기와 믿고 의지하는 친구나 친척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Ischii-Kuntz & Seccombe, 1989) 나타나고 있다.

(3) 남편의 형제순위

친족관계의 범위를 밝히는 연구(이광자, 1988)에 의하면 장남가족이 차남 이하의 가족보다 원친의 부계친족과 접촉하는 비율이 높아 부계 직계가족 제도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남은 부계친족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남가족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것이며 따라서 사회관계망의 구조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4) 주택형태

이웃관계의 정도와 범위에 관한 연구(강대기·홍동식, 1982)에서 아파트 지역은 이웃관계 형성에 장애를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웃관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중요한 사회관계망 범주의 하나인 이웃관계망의 크기가 주택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웃관계망의 크기는 전체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주택형태는 사회관계망구조와 관련될 것으로 고려된다.

(5) 거주기간

Ischii-Kuntz와 Seccombe(1989)의 연구에 의하면 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장기적일수록 이웃관계망의 크기가 커진다. 우리나라 이웃관계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연구들(강대기·홍동식, 1982; 최성기, 1984; 최재석, 1975)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이웃과의 접촉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거주기간은 사회관계망의 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된다.

2) 개인 특성 변수

(1) 연 령

연령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온 시간과 경험의 양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관계망의 범주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형성하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만나는 시가친척의 수가 많아지고(이동원, 1984), 연령이 높을수록 이웃관계망의 범위가 크다는 연구결과(강대기·홍동식,

1982; 최성기, 1984; 최재석, 1983)가 있어 연령이 관계망의 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2)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나는 친족의 수가 증가하고(이동원, 1984) 이웃관계의 범위가 커지는 것으로(최재석, 1983)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례시 부의록에 대한 사례분석에서(최현숙, 1990)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 가입단체의 수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Mcpherson & Smith-Lovin, 1982; 오선주, 1992에서 재인용)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이웃관계망의 범위(강대기·홍동식, 1982; 최성기, 1984), 관계망의 크기(Chatters et. al., 1989), 친족구성비율(Rogler & Procidano, 1986)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3) 직업유무

현대 도시사회에서 직장동료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대두되고 있는데(김주희, 1983) 직업의 유무는 이러한 관계의 형성여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직업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른 사회관계망 범주에 속한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제약한다. 그러므로 취업여부는 개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며 따라서 사회관계망의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된다.

(4) 종 교

종교의 유무는 종교집단과의 관계형성으로 개인의 사회관계망 범주확대와 관련되며, 각 종교의 교리적 특성은 각 종교집단 구성원들의 사회관계망 범주와의 관계형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므로 종교는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관련될 것으로 고려된다. 특히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개인의 전체 관계망에서 교회교우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크고(최현숙, 1990), 자신의 종교집단과의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선주, 1990). 그러나 불교는 종교가 없는 집단과 이웃관계망의 크기가 유사하고(최현숙, 1990) 이웃과의 상호작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오선주, 1990). 따라서 종교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변수로 선정하였다.

(5) 가족주의가치관

가족주의가치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간관계 규범이며 부계친족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태도이다(옥선화, 1989). 태도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규범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린관계에 대한 연구들(Mitchell, 1971; Anderson, 1972; 강대기·홍동식, 1982에서 재인용)은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일차적인 관계인 근린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제시하여 왔지만, 경험적으로는 근대적 가족관이 높을수록 이웃관계의 범위와 정도가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강대기·홍동식, 1982)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주의가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사회관계망의 크기나 구성과 관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작성 및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파악을 위한 문항들, 사회관계망 구조와 관련된 변수로서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가족주의 가치 척도, 조사대상자의 가족환경 및 개인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회관계망의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은 Wilcox(1981)와 Barrera(1981)가 사용한 사회관계망 구성원 측정을 위한 질문에 기초하고 국내외의 선행연구(변화순, 1990; 신기영, 1991; 이경희, 1988)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가정생활의 실정에 맞게 활동내용이나 용어를 다소 수정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가족과 다양한 사회관계망 범주들간의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능영역은 Barrera(1981)의 6개 영역중 정서적 지원영역과 개인적인 평가에 대한 지원영역을 하나로 합하여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5개의 기능영역은 도구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이들 기능영역들은 다시 각각 3가지 활동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5종류의 활동에 대하여 각각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 질문하여 총 15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마다 응답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명칭을 있는 대로 모두 기재하게 하였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응답자와의 관계는 관계망 구성원의 범주를 보기로 제시하고 참고하여 적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기재된 사람들을 관계망구성원으로 파악하였고, 이렇게 파악된 사회관계망 구성원을 토대로 관계망의 크기와 구성을 측정하였다. 관계망의 크기는 조사된 전체 관계망 구성원의 총수로 측정되는데, 전영역을 통하여 동일인이 두번이상 거명되는 경우에는 1명으로 계산하였다. 관계망 구성은 전체구성원의 총수에 대하여 각 관계망 범주별 구성원이 차지하는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는 옥선화(1986)의 가족주의가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족주의가치 척도는 매우찬성에서 매우반대까지 5점 Likert척도 유형인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찬성에 5점 매우반대에 1점을 주고 13문항에 대하여 합산하여 총점을 가족주의의 정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가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주의가 낮은 태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주의 가치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α 는 .754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환경과 개인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족의 월평균 소득, 가족원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부인과 남편의 직업, 남편의 형제순위, 거주기간, 주택형태 등을 질문하였다. 이중 가족의 월평균소득, 남편의 직업과 교육수준은 각각 5단계로 구분하여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합산하여 총점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수로 사용하였고, 평균과 빈도분포를 고려하여 상, 중, 하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생활주기 단계는 첫자녀의 연령과 교육단계를 고려하여 자녀양육기, 초등교육기, 중등교육기, 대학교육기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핵가족의 주부로서 기혼자녀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였다. 가족의 형태를 핵가족으로 제한하고 기혼자녀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사회관계망의 범주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양한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있는 가족을 포함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들을 통하여 그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각 1개교씩을 선정하였고, 실업계고등학교 2개교와 일반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였다. 대학은 유의적으로 1개교를 선정하였다.

1993년 3월 25일에서 26일까지 5명의 대졸이상 주부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가정생활 영역의 설정과 문항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기능영역과 15개의 문항을 결정하였다. 1993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3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형태와 문항수를 조절하였고, 수정된 질문지를 가지고 1993년 4월 2일에서 8일까지 7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329부(회수율 88%)였고, 기재가 부실한 26부를 제외하고 총 303부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총 303부의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관계망 크기와 구성의 일반적 경향은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관련변수에 따른 관계망의 크기와 구성의 차이 검증은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빈 도(%)
부인 연령 (N=303)	20 대	26(8.8)
	30 대	150(51.1)
	40 대	108(36.7)
	50 대	19(3.4)
부인 교육 수준 (N=296)	국 중	13(4.4)
	중 고	43(14.5)
	고 대	133(44.9)
	대 학	96(32.4)
가족 소득 (N=290)	원	11(3.7)
	75만원 이하	27(9.3)
	76-100만원	69(23.8)
	101-150만원	81(27.9)
	151-200만원	71(24.9)
부인 직업 (N=291)	201만원 이상	41(14.1)
	가 정 주 부	221(75.9)
	전 문 관 리 직	20(6.8)
	사 무 직	20(6.8)
	자 영 업	10(3.4)
남편 직업 (N=295)	단 순 노 동 직	20(5.1)
	전 문 관 리 직	76(27.3)
	사 무 직	84(30.1)
	자 영 업	72(25.8)
남편 교육 수준 (N=295)	단 순 노 동 직	47(16.8)
	국 중	8(2.7)
	중 고	17(5.8)
	고 대	106(35.9)
가족 생활 주기 (N=300)	대 학	140(47.5)
	대 학 원	24(8.1)
	자 녀 양 육 기	99(33.0)
	초 등 교 육 기	77(25.7)
종교 (N=302)	중 등 교 육 기	76(25.3)
	대 학 교 육 기	48(16.0)
	기 독 교	83(27.4)
	천 주 교	47(15.5)
	불 교	60(19.8)
남편 형제 순위 (N=301)	기 타	1(0.3)
	무	111(36.6)
	장	114(37.9)
	차	57(18.9)
	삼 남 이 상	42(14.0)
주택 형태 (N=301)	막 내	71(23.6)
	외 아 들	17(5.6)
	단 독 주 택	146(44.9)
	아 파 트	100(33.0)
거주 기간 (N=302)	연 립 주 택	67(22.1)
	2 년 이 하	111(36.8)
	3 년 - 5 년	110(36.5)
가족주의 가치 (N=303)	6 년 이 상	81(26.5)
	낮 은 집 단	89(29.0)
	중 간 집 단	137(44.3)
	높 은 집 단	77(26.7)

IV. 결과 및 해석

1. 사회관계망 구조의 일반적 경향

1) 사회관계망의 크기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평균 10.0명으로 나타난다. 크기의 범위는 가장 작은 경우 2명부터 가장 큰 경우 33명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Milardo (1989)는 교환관계망의 크기가 20명 내외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의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승환(1990)이 제시한 평균 2명보다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빈곤지역의 사회관계망 크기라는 특성도 있지만 오승환이 아주 친밀한 우선순위 4명으로 사회관계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교환관계망과는 다른 유형의 사회관계망을 측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따른 빈도 분포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6~10명인 경우가 47.8%로 전체의 1/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5명

이하의 아주 작은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14.2%나 되고 21명 이상 비교적 큰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균크기인 10명보다 작은 사회관계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62.0%로 나타나 2/3 정도가 10명 이하의 작은 사회관계망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관계망의 범주별로 평균 크기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친족관계망의 평균크기는 4.3명으로 시가친족이 1.7명, 친정친족이 2.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정친족관계망의 크기가 시가친족보다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친구와 이웃관계망의 평균크기는 각각 2.1명과 2.3명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t = -.82, p = .41$) 유사한 크기를 보여준다. 직장동료나 종교교우, 모임회원, 전문적지원자 등의 관계망은 전혀 없는 경우가 80%~90%나 되고, 평균 크기는 각각 1명 이하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도시가족의 사회관계망은 대부분이 친족, 이웃, 친구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관계망의 범주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표 2. 사회관계망 크기의 빈도 분포

크 기	빈 도	백분율(%)
5명 이하	43	14.2
6명-10명	145	47.8
11명-15명	76	25.1
16명-20명	30	9.9
21명 이상	9	3.0
합 계	303	100

2) 사회관계망의 구성

사회관계망 구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사회관계망 구성은 친족이 45.3%, 이웃이 20.6%, 친구가 21.8%, 직장동료가 4.7%, 종교교우가 4.1%, 모임회원이 2.1%, 공적·전문적 지원자가 1.4%의 분포형태로 나타난다. 친족을 시가와 친정의 친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시가친

표 3. 사회관계망 범주별 크기

관계망범주	친족 (시가, 친정)	이웃	친구	직장동료	종교교우	모임회원	전문지원자
평균	4.3 (1.7, 2.6)	2.1	2.3	0.5	0.4	0.2	0.1
표준편차	2.4 (1.7, 1.5)	1.8	2.1	1.1	1.1	0.8	0.4
범위	0-13(0-10, 0-8)	0-11	0-10	0-7	0-6	0-3	0-3

표 4. 사회관계망의 구성비율

관계망범주	친족 (시가, 친정)	이웃	친구	직장동료	종교교우	모임회원	전문지원자
평균	45.3 (17.3, 28.1)	20.6	21.8	4.7	4.1	2.1	1.4
표준편차	19.4 (15.4, 16.1)	15.2	17.2	11.6	9.7	6.4	4.2
범위	0-100(0-86, 0-100)	0-90	0-91	0-78	0-63	0-50	0-33

족의 구성비율이 17.3%이고 친정친족의 구성비율이 28.1%로 전체사회관계망에서 친정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가친족의 구성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성비율의 범위는 친족이 0~100%로 친족이 한명도 없는 경우와 관계망구성원이 모두 친족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동료 구성비율은 0~78%, 종교교우는 0~63%, 모임 및 단체 회원은 0~50%로 나타나는데, 평균 구성비율은 극히 적지만 최대 구성비율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러한 관계망 범주들의 구성비율이 집단이나 모임 및 단체에의 참여 여부에 달렸기 때문이다.

Milardo(1989)가 제시하는 교환관계망의 구성은 친족 36.5%, 친구 45.4%, 친지 4.6%, 직장동료 6.7%, 이웃 4.4%, 기타 2.2%의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친족구성비율이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연구(Fischer et.al, 1989; McCannell, 1988; Rands, 1988)에서는 친족 구성비율이 40~50%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므로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 가족의 친족 구성비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Milardo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이웃과 친구의 구성비율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서구사회의 사회관계망 구성에서의 차이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웃의 구성비율은 평균 20.6%로 친구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Milardo(1989)의 경우 친구의 구성비율은 45.4%로 본 연구의 결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반면 이웃은 4.6%로 본 연구결과보다 상당히 낮다. 본 연구는 부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Milardo(1989)는 부인과 남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에서도 이웃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채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관계망 구조의 관련변수

1) 사회관계망 크기의 관련변수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하여 가족환경 변수와 개인특성 변수에

따라서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5에 의하면 남편의 형제 순위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장남가족의 사회관계망 크기는 평균 10.7명이고 차남 이하의 경우는 9.5명으로 장남이 차남 이하보다 좀더 큰 사회관계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이광자, 1988)에서 제시되는 바 장남과 부계 친족집단간의 밀접한 관계가 장남부인의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변수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크기

변수	집 단	빈 도	평 균	F 값
SES	하	69	10.0	0.004
	중	102	9.9	
	상	83	9.7	
가족 생활 주기	자녀양육기	99	9.3	1.38
	초등교육기	77	10.4	
	중등교육기	76	10.1	
	대학교육기	48	10.8	
남편 형제	장 남	131	10.7	*
	차남이하	170	9.5	
주택 형태	단독주택	136	9.8	0.32
	아 파 트	100	10.1	
	연립주택	67	10.3	
거주 기간	2년 이하	111	9.5	1.00
	3년-5년	110	10.2	
	6년 이상	82	10.4	
연령	34세 이하	98	9.4	1.21
	35세-40세	92	10.0	
	41세 이상	113	10.4	
교육 수준	중졸이하	56	9.7	0.34
	고 졸	133	10.3	
	대졸이상	107	9.9	
직업 유무	무	221	10.1	0.97
	유	70	9.5	
종교	기독교	83	10.5	0.56
	천주교	47	10.1	
	불 교	60	9.8	
	무 교	111	9.6	
가족 주의 가치	낮 음	89	9.9	0.3
	중 간	137	9.9	
	높 음	77	10.4	

* $P < .05$

남편의 형제순위를 제외하고는 사회관계망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로운 변수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의 교환관계망의 크기는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크기로 유지되는 일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2) 사회관계망 구성의 관련변수

사회관계망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밝히기 위해서 7개의 사회관계망 범주들의 구성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가족환경 변수와 개인특성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으로 제시하였다.

(1) 친족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

표 6에 의하면 친족 구성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족환경변수는 가족생활주기단계($P < .001$), 주택형태($P < .05$), 거주기간($p < .05$) 등으로 나타난다. 가족생활주기단계가 낮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이 아파트의 경우보다, 2년 이하 단기 거주집단이 3년 이상 장기거주집단보다 친족 구성비율이 높았다.

친족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 변수는 연령($p < .01$)과 종교($p < .01$)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독교와 천주교신자가 불교신자나 무교에 비하여 친족구성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른 차이는 기독교 천주교의 교리적 특성상 다른 종교에 비하여 종교집단 교우와의 유대를 더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친족과의 유대가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이웃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웃 구성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족환경변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지위($p < .05$)와 가족생활주기단계($p < .05$)로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족생활주기단계가 높을수록 이웃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강대기·홍동식(1982), 변화순(1990), 이경희(1988)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웃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 변수는 연령($p < .05$), 교육수준($p < .01$), 직업유무($p < .001$) 등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주부에 비해 비취업주부의 경

우에 이웃 구성비율이 높았다.

(3) 친구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

표 6에 의하면 친구 구성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족환경변수는 사회경제적지위($P < .05$)이고, 개인환경변수는 교육수준($p < .01$)과 직업유무($p < .001$)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친구 구성비율이 높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먼거리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유지에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크기 때문(강대기·홍동식, 1982; 최현숙, 1990)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는 집단이 직업이 있는 집단보다 친구구성비율이 높았다.

(4) 직장동료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

표 6을 통하여 직장동료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족환경변수는 사회경제적지위($p < .05$)와 남편의 형제순위($P < .05$)이다.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차남 이하의 부인이 장남의 부인보다 직장동료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남의 부인이 차남 이하의 부인보다 직장동료 구성비율이 낮은 것은 장남 부인이 차남 이하의 부인에 비해 부계친족집단의 기대와 요구로 취업을 적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동료 구성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개인특성 변수는 직업유무($p < .001$)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 여부에 따라 직장동료의 존재여부가 결정되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5) 종교교우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

종교교우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가족환경 변수는 가족생활주기($P < .001$)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단계가 높아질수록 종교교우 구성비율은 커지고 있다. 이는 가족생활주기 후반기에 갈수록 부인들은 종교집단과 가까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교교우 구성비율에 차이를 나타내는 개인특성 변수는 연령($P < .01$), 직업유무($P < .05$), 종교($P < .001$) 등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에 종교교우 구성비율이 높았다. 또한 종교의 종류에 따라서 종교교우 구성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종교교우 구성비율은 각각 8.7

표 6. 관련변수에 따른 사회관계망 범주별 구성 비율

변수	집 단	빈도	친 족	이 윗	친 구	직 장	종 교	모 임	전문지원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SES	하	69	50.0	24.4	18.2	2.1	3.2	1.2	0.9
	중	102	42.8	20.4	21.4	4.5	5.6	3.5	1.7
	상	105	44.5	17.8	24.8	6.8	3.7	1.1	1.4
	F		3.01	4.04*	3.17*	3.20*	1.51	4.76**	0.84
가족 생활 주기	자녀양육기	99	50.2	17.0	23.5	7.2	1.1	0.5	0.6
	초등교육기	77	46.1	22.7	20.2	3.6	4.6	1.6	1.2
	중등교육기	76	45.5	22.3	19.8	3.9	4.5	4.6	0.9
	대학교육기	48	34.8	24.1	23.0	2.5	9.4	2.2	3.8
	F		7.15***	3.34*	0.97	2.51	8.44***	6.22***	7.06***
남편 형제 순위	장 남	131	46.3	21.5	21.6	2.8	4.9	1.4	1.7
	차남이하	170	44.8	20.1	22.0	5.9	3.6	2.7	1.1
	F		0.43	0.59	0.03	5.58*	1.48	3.11	1.43
주택 형태	단독주택	136	48.2	20.9	20.9	4.5	2.9	1.7	1.1
	아 파트	100	41.8	20.1	23.9	5.2	5.8	1.2	2.3
	연립주택	67	45.4	20.8	20.6	4.2	4.1	4.0	0.6
	F		3.20*	0.09	1.05	0.17	2.60	4.28*	4.00*
거주 기간	2년 이하	111	49.2	18.3	21.8	5.9	2.4	1.4	1.0
	3년-5년	110	42.9	20.8	22.9	4.4	5.4	1.9	2.0
	6년 이상	82	44.0	23.4	20.3	3.3	4.9	3.2	1.1
	F		3.22*	2.62	0.52	1.14	2.96	2.01	1.92
연령	34세 이하	98	49.3	17.4	23.7	6.4	1.6	0.8	1.0
	35-40세	92	47.8	23.5	18.8	4.0	4.1	1.8	0.6
	41세 이상	113	40.2	21.0	22.8	3.7	6.4	3.4	2.3
	F		6.98*	4.00*	2.26	1.61	6.94**	4.30*	4.9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6	46.1	27.0	15.8	2.4	4.3	3.9	0.7
	고 졸	133	17.0	20.0	21.7	4.3	4.1	2.0	0.7
	대졸 이상	107	42.6	17.9	25.3	6.6	4.3	1.1	2.6
	F		1.59	6.91**	5.76**	2.53	0.02	3.63*	6.53
직업 유무	무	221	44.5	21.9	23.7	1.4	4.88	2.18	1.7
	유	70	48.3	14.8	17.0	15.4	1.9	2.13	0.5
	F		2.13	12.99***	8.25***	99.89***	4.99*	0.003	4.00*
종교	기독교	83	40.5	18.6	23.3	4.8	8.7	1.0	3.3
	천주교	47	41.1	20.3	21.8	4.7	7.9	3.2	1.3
	불 교	60	47.4	24.5	21.0	3.3	0.9	2.7	0.4
	무 교	111	49.8	20.2	21.3	5.4	0.8	2.1	0.5
	F		4.81**	1.82	0.28	0.41	18.35***	1.51	9.18***
가족 주의 가치	낮은 집단	89	43.0	22.8	23.2	4.3	3.7	2.1	1.2
	중간 집단	137	46.6	19.4	21.3	5.2	4.6	1.3	1.6
	높은 집단	77	46.4	20.2	21.2	4.0	3.8	3.6	1.1
	F		1.03	1.4	0.37	0.33	0.30	3.3*	0.44

*P<.05 **P<.01 ***P<.001

%와 7.9%인데 비해, 불교와 무교집단의 평균 종교교우 구성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난다. 이는 각 종교의 교리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오선주, 1990) 생각된다.

(6) 모임 및 단체회원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

모임 및 단체회원의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가족환경 변수는 사회경제적 지위($P < .05$), 가족생활주기 단계($P < .001$), 주택형태($P < .05$)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중간 집단이, 가족생활 주기단계에서 중등교육기 단계에 있는 집단이,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임 및 단체회원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임회원의 구성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개인특성 변수로는 연령($P < .05$), 교육수준($P < .05$), 가족주의가치관($P < .05$) 등이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모임 및 단체회원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7) 공적 전문적 지원자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

공적 전문적 지원자의 구성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족환경 변수는 가족생활주기 단계($P < .001$)와 주택형태($P < .05$)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높을수록, 아파트거주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적 전문적 지원자 구성비율이 높았다.

공적 전문적 지원자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 변수로는 연령($P < .01$), 교육수준($P < .01$), 직업유무($P < .05$), 종교($P < .001$) 등이 나타난다.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에 비해 비취업 주부의 경우에,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신자의 경우에 공적 전문적 지원자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기독교신자의 경우 공적 전문적 지원자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상담자로서 목사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가족환경 변수와 개인특성 변수에 따라서 가족의 사회관계망 범주별 구성비율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사회관계망 구성과 관련되는 변수를

규명하였다. 분석된 모든 변수에 따라서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사회관계망 범주의 구성비율에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10개의 변수는 모두 사회관계망 구성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변수중 가족생활주기, 연령, 직업유무는 5종류의 사회관계망 범주의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은 4가지 종류의 사회관계망 범주의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며, 주택형태와 종교는 3가지 사회관계망 범주의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에 비해 남편의 형제순위, 거주기간, 가족주의가치관 등은 단지 1가지 종류의 사회관계망 범주의 구성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것은 인정되나, 극히 부분적인 영향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해 두고자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핵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크기와 구성을 분석하고 관련 변수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 핵가족의 사회관계망 크기는 평균 10.0명이며, 범위는 2명부터 33명에 이른다. 이는 20명 내외로 제시되고 있는 서구사회의 교환관계망의 크기와 비교해 볼때 다소 작은 것으로 보인다.

2) 사회관계망의 구성은 친족이 45.5%, 이웃이 20.6%, 친구가 21.8%, 직장동료가 4.7%, 종교집단교우가 4.1%, 모임단체회원이 2.1%, 공적 전문적 지원자가 1.4%의 분포형태를 보인다. 친족의 구성비율이 가장 높고, 이웃과 친구의 구성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동료나 종교집단교우, 모임 및 단체회원, 공적·전문적지원자의 경우에 평균적인 구성비율이 5%로 이하로 아주 낮고, 가족이 이들을 관계망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80~90%에 이른다. 그러므로 도시가족의 사회관계망은 주로 친족, 이웃, 친구 등 세가지 사회관계망 범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관련되는 변수는 남편의 형제순위이고, 사회관계망의 구성과 관련되는 변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생활주기단계, 남편의 형제순위, 주택형태, 거주기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종교, 가족주의가치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남편의 형제순위, 거주기간, 가족주의가치관은 극히 부분적으로 관련되므로 앞으로 이에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도시가족의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변수를 규명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사회관계망의 또 다른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가족생활의 제측면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후속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사회관계망의 유형을 교환관계망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다른 유형의 사회관계망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관계망을 부인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남편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이 양자를 비교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가족의 사회관계망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의 사회관계망구조에 관련되는 변수에 대한 검토에서 차이 검증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관련된 새로운 변수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강대기·홍동식(1982). 대도시의 거주환경과 근린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집, 123-140.
- 2) 김경원(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주희(1983).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2차집단의 성격—그 연속과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15, 29-41.
- 4) 변화순(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4), 8-38.
- 5) 신기영(1990).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오선주(1990). 가족과 사회망과의 관계 심도.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17, 229-244.
- 7) 오선주(1992). 사회계층별로 본 가족의 주요 사회망,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및 구직과 사회망. *대한가정학회지* 30(3), 177-191.
- 8) 오승환(1990). 도시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옥선화(1986). 가족주의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143-152.
- 10) 유가효(1984). 도시 중류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일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 119-140.
- 11) 이정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13)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1). *이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4집, 7-36.
- 14) 이원주(1988). 서울시 기혼남녀의 친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이정향(1980). 도시 친족간의 인간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대도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정채성(1987). 난지도 주민의 빈곤과 사회적 관계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조옥라(1976). 소도시 주부의 가족 친족 및 사회생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최성기(1984). 한국 중소도시에 있어서의 근린관계에 관한 연구—청주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최재석(1983). 아파트지역의 주민구성과 근린관계—서울 중류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문제* 206, 37-51.
- 20) 최재석(1987). 이촌과 친족의 변화. *한국사회학*, 21집 여름호, 215-240.
- 21) 최현숙(1990). 한국의 사적 원조연결망에 있어서의 상례부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2) Barrera, M.(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

- ment of pregnant adolescents : Assessment issues in Benjamin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69-96.
- 23) Belsky, J. & Rovine, M.(1984). Social network contact, family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55-462.
- 24) Bott, E.(1971). *Family and social network*. (2nd Ed.) New York : The Free press.
- 25) Chatters, L.M., Taylor, R.J. & Neighbors, H.W. (1989). Size of informal helper network mobilized during a serious personal problem among black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667-676.
- 26) Ell, K.(1984).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 a review. *Social Service Review* 58. 133-149.
- 27) Fisher, J.L., Sollie, D.L., Sorell, G.T. & Green, S.K. (1989). Marital status and career stage influence on social networks of young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521-534.
- 28) Ishii-K.M. & Seccombe, K.(1989). The impact of children upon social support networks throughout the life cour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77-790.
- 29) Lee, G.R.(1979).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he Family. in W.R. Burr, R. Hill, F.I. Nye & I.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Y. : The free press. 27-56.
- 30) McCanell, K.(1988). Social networks and the transition to motherhood. in Robert M. Milardo(Ed.) *Family and social network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83-106.
- 31) Milardo, R.M.(1988). Family and social networks : An overview of theory and methodology. in Robert M. Milardo(Ed.) *Family and social network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13-47
- 32) Milardo, R.M.(1989).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social networks of spou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65-174.
- 33) Rands, M.(1988). Changes in social networks following marital seperation and divorce. in Robert M. Milardo(Ed.) *Family and social network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127-146.
- 34) Rogler, L.N., Procidano, M.E.(1986). The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marital roles : A test of the Bott hypothesis in an intergeneration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693-701.
- 35) Surra, C.A.(1988). The influence of the interactive network on devoloping relations. in Robert M. Milardo(Ed.) *Family and social network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48-82.
- 36) Wellmen, B.(1981). Applying network analysis to the study of support. in Benjamin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171-200.
- 37) Wilcox, B.L.(1981). Social support in adjusting to marital disruption : A network analysis. in Benjamin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97-115.